

방미 마친 尹 이달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7일 기사다 총리 방한 최종 조율
 “한일 정상 셔틀외교 완전 복원”
 이달 중순 G7 정상회의 기간
 3국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 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공조를 발판 삼아 안보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한일, 나아가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일 기사다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 기사다 총리의 답방 시점으로 올 여름 정도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빈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사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사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6일 도쿄 회담 이후 50여 일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은 기사다 총리의 답방을 두고 ‘정상 셔틀외교의 완전 복원’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새로운 핵심 성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실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오가는 셔틀외교 차원의 일본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기사다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도 적지 않지만,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일이 기사다 총리 방한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미일 관계 공고화를 위해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 한미 핵협의그룹(NTG)과 연계된 한미일 3자 차원의 확장역제 협의체가 G7을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3국 간 확장역제 협의체는)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3국 간 확장역제 협의체는)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 한미 핵협의그룹(NTG)과 연계된 한미일 3자 차원의 확장역제 협의체가 G7을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3국 간 확장역제 협의체는)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달 4월 4일 한 달 동안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국힘 윤리위 ‘망언’ 김재원·태영호 징계 착수...수위 주목

첫 회의 열고 개시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윤리위 첫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당원 200여명이 징계 요구서도 제출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오르자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는 징계 신고서와 윤리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을 종합했다”며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 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전

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3가지가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JMS 관련 SNS 게시, 제주 4·3사건 발언, 이 2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의 백범 김구 선생 관련 발언이 징계 개시 사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황 위원장은 “논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회의는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오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그 전까지 징계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국힘 “민주 5월 임시국회 소집은 방탄용” 비난

“돈봉투 의혹 덮기 당장 멈추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방탄 국회’ 소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소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2중대가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지난해 8월부터 300일이 되어가도록 ‘이재명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쇄신이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혐의, 전·현직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기된 ‘돈봉투 전담대회’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국회 1주년 가능성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표는 논평에서 민주당 정경태 최고위원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전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돼있는 현행 선거법에서 ‘행위’라는 단

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전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 발언까지 무제한 허용하는 이 개정안은 결국 선거를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음흉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방탄복은 언젠가 뚫린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주말 새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 해당 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 전 대표 후원 외곽조직으로 운영됐던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와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동일인이었고, 이 인물이 최근 파리에 다녀왔다고 하니 조직적 탈 탈추기와 증거 인멸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었는지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4.5%...4주만에 소폭 상승

리얼미터...민주 44%·국힘 35%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미국 국민 방문과 맞물려 4주만에 상승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

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9%p인 트(p) 상승한 34.5%로 집계됐다.

4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긍정 평가가 4주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1%p 하락한 62.6%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난주 최고치를 기록했던 무당층이 이번 주에도 기록을 경신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 무당층 비율은 지

난 조사보다 0.2%p 오른 14.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전주보다 1.0%p 떨어진 44.7%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를 차이는 지난주 11.2%p에서 9.5%p로 좁혀졌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0.2%p 오른 3.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THE RED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2023. 5. 20. ~ 29.